

의류 1500점…공무원의 이웃사랑



전남도청 송경일 과장

전남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해달라며 1500여 점의 의류를 기증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전남도는 9일 송경일 경제통상과장(사진)이 최근 의류 1000여 점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써달라며 도청 보건복지여성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이와 함께 의류 500점도 자신의 고향인 고흥군에 별도로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중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는 송 과장의 친동생 송홍기(47)씨가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 달라”며 송 과장에게 옷을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기증 의류를 지역 요양원이나 자매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 과장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작은 물건이나 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광평기자 kroh@kwangju.co.kr

영광군청 김민수 실무관 국무총리상



영광군청 건설방재과 김민수(45·전산직 7급) 실무관이 ‘2012년 안전 한국훈련’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김 실무관은 2012년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영광군 총괄담당자로 유관기관 합동 회의 개최, 공무원비상소집, 원전 실제훈련, 위기대응통합 도상 훈련,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등 민관군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정부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다. 1995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신설된 재난안전관리에 서 근무하고 있다.

/영광=조의상기자 ischo@

광주시관광협 中 여행사 초청 설명회

광주시관광협회(회장 김홍주)에서는 9일 프라도호텔에서 중국 호남성 여행사 대표, 언론사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 내 한국 관련 여행사 임직원들을 초청, 광주 관광·문화·음식을 소개하고,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협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인문화관광 교류행사를 발굴해 매년 1만여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산림조합, 시각장애인선교회 위문



산림조합중앙회 전리남도지회(지회장 최창호)는 최근 천주교 광주 대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를 찾아 돼지저금통과 성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산림조합전남지회 제공>

전남대동아리 ‘휴먼스쿨’ 사랑의 연탄 1800장



전남대 해외봉사동아리 ‘휴먼스쿨’은 최근 북구 건국동 일대 기초 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정 10곳에 18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휴먼스쿨 제공>

장흥 정남진수산, 백미 40가마 이웃돕기



장흥군 정남진수산(대표 고재룡)은 최근 180만원 상당의 백미 20kg 40가마를 정흥군(군수 이명희)에 기탁했다. 정남진수산은 이날 지속적인 기부를 약속했다.

<정흥군 제공>

문 영농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정고객 및 자체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가사간병방문우미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친환경농사업단=고연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전

모집

▲불링 동호회 ‘다이아몬드’ 회원=30세 이상 부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011-607-0347.

▲한국웃음협회 회원=건강회복과 웃음문화 보급을 위한 웃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016-607-1958.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100원회 회원=1일 100원으로 부담없이 이웃 사랑 실천하실 분 011-666-0660.

▲사랑의 교실 중·고등학교 과정교사, 수강생=국어·영어·수학·사회과목 무료 봉사자, 월~금요일 오후 7시~10시30분. 062-223-8529, 016-223-9541.

▲꿈을 드는 사람들(광주학당) 학생=한글 기초반, 초등반·중등반, 영어 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무료 강의, 서방시장안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수도방위사령부 제33경비단 호남 전우회=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푸른복지 문화센터 무료 수강생=홈페션, 리본공예, 웃음치료, 칼라믹스, 종이접기, 댄스스포츠 010-9940-1769.

▲한국노후생애대학 6기 학생=교육과정은 노후생애설계, 생활영어(여행영어), 한시(한문), 웃음(건강)치료, 노인상담심리학. 원서접수는 14일(월)~2월 15일(금) 오후 5시까지 062-223-1357, 010-

2646-5023.

부음

▲신정석씨 별세 양현(자영업)·재영(삼성전자)씨 부친상=발인 10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임천규씨 별세 현진(인천공항세관)·근주(일신방지)씨 부친상=발인 10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오후 5시까지 062-223-1357, 010-

謹 삼가故인의冥福을 빕니다 **弔**

故김명철(남/69세)	故차종님(여/75세)
子/子婦: 김현수/조미옥, 명수 女婿: 김현지/차민호 未亡人: 박금자 • 호남: 402호 • 장자: 영학공원 • 혼인: 1월 11일 • 연락처: 227-4314	子/子婦: 김용/이영숙, 현 김민경, 상훈/백미선 女婿: 김민민 • 혼인: 401호 • 혼인: 1월 10일 • 장자: 보성 산현 • 연락처: 227-4383
故안인철(남/77세)	故변동철(남/64세)
子/子婦: 안성수/강경숙, 험수/전연화, 정수/박현영 女婿: 안현숙/김승호, 안영애/백현연 • 혼인: 101호 • 혼인: 1월 10일 • 장자: 화순 도곡 선영 • 연락처: 227-4385	子/子婦: 박정원/박경희, 정연/이지숙 女婿: 김민순 • 혼인: 102호 • 혼인: 1월 10일 • 연락처: 227-4386

마음 까지 웠 안 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와인+한식 연구 광주출신 국내 탑 외인전문가 권홍식 씨

“와인과 한식 찰떡궁합입니다”

“농경문화엔 막걸리, 공업문화에는 소주·맥주가 있었다면 다양한 생활 방식이 공유되는 지금은 각자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의 시대가 아닐까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와인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광주지역에서도 이 ‘신의 선물’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온 사람 있다. 권홍식(39)씨다. 권씨는 세계에 170여명 밖에 되지 않을 만큼 깊이로운 보르도 와인 협회 인증(IBWE)을 받아 광주보다 전국에서 더 유명한 와인 전문가다.

“1996년 미국 유학 중 와인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와인은 무슨 와인. 술은 맥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호텔경영을 전공하며 한잔 두잔 마시던 와인의 맛과 맛에 점점 심취했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서울까지 와인공부를 하러 갈 정도로 사랑하게 됐죠.”

그는 와인을 단순히 술로 생각하지 않는다. 9년째 진행되는 와인 모임에도 매달 음식, 음악, 생산지 등 컨셉을 정해놓고 와인을 선정한 후,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길 때 술을 끓어넘는 ‘와인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와인을 마실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먼저입니다. 건배한 후에 술잔보다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원샷을 하거나 자신의 잔을 상대방에게 권하지 않는 것 또한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와인을 즐기는 매너예요. 와인은 배우자나 친구처럼 오래 걸에 둘수록 맛있어지니까요.”

금수장 호텔 부사장이기도 한 그는 한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찾는 일에도 열심이다. 피클보다 스파게티와 와인이 잘 어울리는 것처럼, 한식 중에서도 와인과 궁합이 잘 맞는 ‘요리’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

“메를로(포도 품종은 삼겹살과 잘 어울립니다. 진관례는 불고기와 먹으면 느끼한 맛이 사라지고요. 겨울에 생굴은 초장에 먹으면 담백한 맛이 사라지는데 소비뇽블랑과 먹으면 그 맛이 더 살아요. 와인은 음식의 맛을 보완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잘 어울리는 한식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이제 그는 한국소믈리에협회 운영위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와인을 즐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권씨는 유통 불량품을 원천 차단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한 접근장벽을 없애는 코끼리(corkage·술을 가져오면 와인글라스와 서비스를 제공해 봉사료를 받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주진해 갈 계획이다.

끝으로 그가 설명하는 와인 고르는 법.

“와인을 먹었는데 시금털털하고 향이 이상하다면 그 와인은 보관이 잘못됐을 확률이 높아요. 20% 이상 할인하는 와인은 신중히 고민하고 사야합니다. 와인은 가격에 상관없이 제각각 맛이 있어요. 그래서 와인보다는 와인에 맞는 잔을 고르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좋은 와인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글·사진=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나눔 실천하며 사회생활 배워요”

GS칼텍스 신입사원 훌륭 어르신에 사랑의 연탄



GS칼텍스(대표 허진수 부회장) 신입사원들이 지난 8일 여수시 연동동, 광무동 훌륭 어르신들을 찾아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3년 GS칼텍스에 입사한 새내기 56명은 이날 영하의 세销售渠道로 아랑곳 않고, 11명의 훌륭 어르신들에게 32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GS칼텍스는 신입사원 때부터 자원봉사활동, 기부참여 등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나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줌으로써, 임직원들이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특히 2005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올바른 기업관 정립을 위해 신입사원 입문연수 과정에 봉사활동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매년 1월 복지기관 특식지원 및 배식, 저소득 가정 아동들과 함께 제빵 체험, 훌륭 어르신들의 집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내방

▲이개호(전남도 F1 조직위원장)씨 ▲이점관(〃 행정지원국장)씨 ▲정병재(〃 해양수산국장)씨 ▲최종선(〃 F1 조직위 운영본부장)씨 ▲정승준(〃 정책기획관)씨

인사

◆담당국

◇서기관(승진) ▲담당읍장 국승재

◇서기관(공로연수) ▲자치행정과 박영목

◇사무관(승진)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라규재

◇사무관(전보) ▲위회사무과장 정권철 ▲금성면장 정운기

◆광주 서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이근수

◇5급 승진 ▲상무2동장 김기수 ▲동천동장 안병찬 ▲화정4동장 손순탁

◇4급 전보 ▲총무국장 박희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5급 전보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사회복지과장 최병철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보건행정과장 조승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은근

◆전남대

◇4급▲교육지원과장 오정민 ▲경리과장 이용재

◇5급▲경영대학 행정실장 최형담 ▲공학대학 행정실장 곽동근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실장 정혁기 ▲수산해양대학 행정실장 심병식 ▲총무과 김용천 ▲언어교육원 김재신 ▲생활관 천민영 ▲부설고등학교 정진모 ▲정보전산원 최광희

농협광주본부-조선대 경영대학원 협약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사진 왼쪽 세번째)가 최근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원장 전의천·왼쪽